

[종합·국제]

오바마 첫 회견 '북한은 없었다'

9일 밤(현지시간) 미국 전역에 생방송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남' 자도 나오지 않았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죽', '독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부르며 국정연설이나 회견에서 거의 빠짐없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던 것과 180도 달랐다.

오바마 정부에선 북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찌감치 밀려나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최근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대남 강성발언을 잇따라 내뱉은 것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하는 등 '요란'을 떨며 오바마의 관심끌기를 시도했지만 전례 '악발'이 먹히지 않은 듯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움직임 등 핵확산 움직임에 대해 '티프하고 친절적인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 북한에도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북핵 문제 언급 안해...정책 후순위 입장 경기부양책 통과 등 경제위기 타개 집중

1시간 동안 진행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면 최대 현안인 경제위기 타개에 역점을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약 10분간 미리 준비한 연설을 통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경제실태를 실업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공화당이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하며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민간영역이 극도로 취약해진 점을 지적, 오직 연방정부만이 미국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악(惡)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개월 내에 이란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테이블에 마

주앉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틀파구를 찾고 있다"면서 "이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이끄는 외교활동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추진이 중동지역을 뒤흔들고 무기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을 협력해야 한다며 핵확산 방지의지를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 문제에 대해 선 분명한 자기색깔을 내며 전임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화했다.

그는 최근 평화적으로 실시된 이라크 선거 등을 언급하며 이라크에서의 사태진전을 평가한 뒤 "그러나 우리는 아프간에서는 아직 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해 5도 해상 중국어선 사라졌다

주민들 "연평해전때와 상황 비슷" 당국, 예의주시

북한의 잇따른 강경발언으로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5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한꺼번에 모두 자취를 감췄다.

10일 해양경찰청과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앞 바다에서 선단을 구성,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지난달 말부터 줄기 시작, 지난 4일 오후엔 연평도

앞바다에 있던 50여척 등이 거의 동시에 단 학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겨울철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휴어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해 5도 앞 북한 영해에서 입어료를 내고 밥과 낚을 가리지 않은 채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상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관계당국도 상황

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부대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중국 어선이 단 학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평소와 다른 상황이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 당시에도 남북간의 충돌을 며칠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동시에 사라진 적이 있어 그때와 비슷한 상

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령도 주민 조모(45) 씨는 "오는 16일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라고는 들었는데 그에 앞서 북한이 무슨 '잔난'를 칠지 모르지만 과거 90년대에 비해서는 북측의 도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산동(山東) 성수산당국은 지난 1월 23일 자로 된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서해 5도 해상에서의 조업에 각별하게 주의하라고 자국 어선의 선장들에게 통보했으며 최근엔 무선을 통해 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폭죽놀이에 불 탄 '중국판 피사의 사탑'

CCTV 신축 사옥 붕괴 위기

소방관 1명 사망, 7명 부상

중국 관영 중앙(CC)TV 신축 사옥의 부속건물에서 지난 9일 밤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은 정월 대보름 맞아 대규모로 터뜨린 폭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의 뤼위안 소방부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CCTV 측이 후난의 한 폭죽발사 전문 용역업체를 고용해 CCTV 신축 건축현장 공터에서 위험도 A급의 폭죽 수백발을 터뜨려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뤼 부국장은 9일 저녁 8시 27분께 공터에서 쏘아올려진 폭죽 불꽃이 부속건물인 문화센터 꼭대기에 불은 뒤 건물 아래로 불길이 크게 번졌다고 말했다.

이날 불로 소방관 7명과 CCTV 신축현장 직원 1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29세의 장젠 용 소방관은 결국 숨졌다.

불이 나자 신고를 받고 27개 중대 85대의 소방차와 590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으나 6시간이 지나서야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가 난 문화센터는 건물의 외장재가 대부분 불에 타고 일부 건물 내부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내려앉을 만큼 전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화재의 원인이 된 폭죽은 터뜨릴 때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험도 A급으로 분류됐음에도 이들은 베이징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경찰의 제지를 무릅쓰고 발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 중국 베이징의 CCTV 사옥이 지난 9일 화재에 휩쓸렸다. CCTV 측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터뜨린 폭죽에 의해 발생한 이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백발의 남은 폭죽과 삼자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폭죽을 발사한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곳은 중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 CCTV 신사옥 본건물의 북쪽에 위치한 문화센터로 사실상 완공됐으나 입주는 시작하지 않았고 소방하가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곳은 CCTV의 녹화실과 디지털센터, 극장 등과 함께 만다린오리엔탈호텔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 타원비고거부 =

풀이론반

교사학원의 전문가

김석창 ▶ '광주한빛고시학원' 방문촬영

*** 79회 공무원 합격의 대세는 ***

"역시" 한빛고시학원

[토구청암 230-0234 www.hanbitpost.co.kr]

= 조기마감 . 선착순접수 =

을문제풀이반

교사학원의 전문가

금토금방이망을
건강과 품격의 **일정 품으로!**

한국인의 건강과 품격을 위한
금토금방이망을
한국인의 건강과 품격을 위한
금토금방이망을

(주)에마트
한국인의 건강과 품격을 위한
금토금방이망을

080-511-04444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084-744-1109